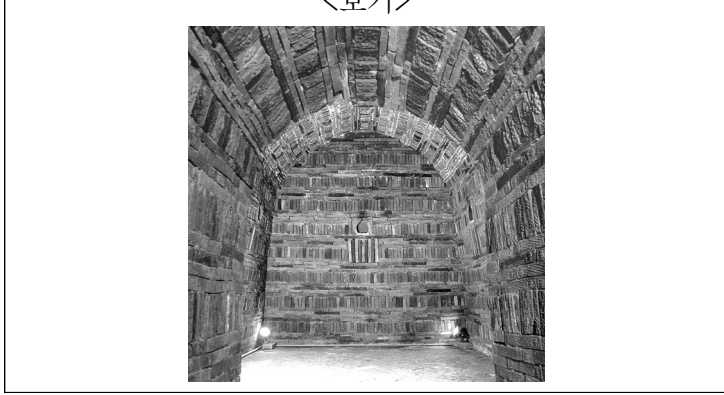


- ① 우리나라 지형을 본떠 만든 고가의 화폐인 은병(활구)을 주조했다.
- ② 주전도감을 설치하고 화폐를 주조했다.
- ③ 저화(楮貨)를 처음 만들었다.
- ④ 삼한통보, 해동통보, 해동중보 등을 만들어 강제로 유통시키려고 했다.

8. <보기>의 고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보기>—



- ① 1971년 공주 송산리 고분군의 배수로 공사 중에 우연히 발견되었다.
- ② 무덤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지석이 발견되어 연대를 확실히 알 수 있는 무덤이다.
- ③ 벽화로 무사, 우차, 여인의 풍속화가 있어서 당시의 생활풍속을 엿볼 수 있다.
- ④ 중국 남조의 영향을 받았으며 완전한 형태로 발견되었다.

9. <보기>에서 설명하는 고려시대의 불상은?

—<보기>—

통일신라시대에는 조화로우며 미적으로 균형이 잡힌 불상이 많이 만들어졌다. 그러나 통일신라 말부터 지방에서 호족이 성장하면서 자유로운 예술관이 유행하였고, 이로 인해 고려시대에는 개성이 넘치고 독특한 불상들이 제작되었다. 고려 초기에는 신라적인 색채가 포함된 불상들이 제작되었으나, 고려의 문물제도가 완성되는 11세기 이후부터는 고려다운 특징과 함께 지역색이 강한 불상이 등장하였다. 이 불상은 고려 광종의 명을 받아 968년경 승려 조각장 혜명이 제작한 것으로, 21미터가 넘는 대형석불로 유명하다.

- ① 경주 배동 석조여래삼존입상
- ② 논산 관촉사 석조미륵보살입상
- ③ 영주 흑석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
- ④ 금동정지원명석가여래삼존입상

10. <보기>의 여행 일정을 고려할 때, 2018년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산사(山寺)를 방문한 과정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보기>—

서울에서 일찍 출발해 공주로 가서 산사를 둘러보았다. 그리고 순천에 있는 산사를 보고, 해남에 도착해 산사 주변에서 숙박했다. 다음 날은 양산과 안동에 있는 산사를 보고 서울로 올라왔다.

- ① 마곡사 - 선암사 - 대흥사 - 통도사 - 봉정사
- ② 법주사 - 송광사 - 대흥사 - 부석사 - 통도사
- ③ 고란사 - 마곡사 - 송광사 - 오어사 - 대흥사
- ④ 부석사 - 법주사 - 대흥사 - 불국사 - 선암사

11. <보기>에서 설명하는 인쇄물들이 제작된 시기를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보기>—

- (가) 독일의 구텐베르크가 마인츠에서 『42행 성서』를 금속활자로 간행했다. 현재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다.
- (나) 이 유물은 여주 취암사에 머물던 승려인 백운 화상이 쓴 것이다. 후에 제자들이 충청북도 청주에 있는 흥덕사에서 이 책을 금속활자로 찍어냈다. 현재 이 책은 프랑스 국립 도서관에 보관되어 있다.
- (다) 고려시대 최윤의(崔允儀) 등 17명이 왕명으로 고금의 예의를 수집·고증해 50권으로 엮은 전례서(典禮書)이다. 이규보의 『동국이상국집』에 의하면 금속활자로 찍어냈다는 기록이 있으나, 현재 남아있지 않다.

- ① (가) - (나) - (다) ② (나) - (가) - (다)
- ③ (다) - (가) - (나) ④ (다) - (나) - (가)

12. <보기>에서 영조의 탕평정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보기>—

- ㄱ. 산림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다.
- ㄴ. 서원 건설을 적극 장려했다.
- ㄷ. 이조전랑의 자천권(自薦權)을 폐지했다.
- ㄹ. 공론을 존중하며 붕당을 육성했다.

- ① ㄱ, ㄴ ② ㄱ, ㄷ
- ③ ㄴ, ㄷ ④ ㄴ, ㄹ

13. <보기>의 주장을 반대한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보기>—

러시아가 영토를 넓히려고 한다면 반드시 조선이 첫 번째 대상이 될 것이다. (중략) 그렇다면 오늘날 조선이 세워야 할 책략으로 러시아를 막는 것보다 더 급한 일이 없다. 러시아를 막는 책략은 무엇인가? 중국과 친하고(親中國), 일본과 맺고(結日本), 미국과 이어짐(聯美國)으로써 자강을 도모할 뿐이다. - 황준헌, 『조선책략』

- ① 이 운동은 훗날 항일 의병 운동으로 이어졌다.
- ② 영남 만민소 등 집단 상소를 통해 반대 의견을 표출했다.
- ③ 외침에 맞서기 위해 전제정치를 근대정치로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④ 일본과 서양 열강의 침략에 맞서는 반침략 운동의 정신적 뿌리가 되었다.

14. <보기>는 화북에서 항일 투쟁을 벌인 조선의용군의 전단지 내용이다. 이 조직과 관련된 정당이나 군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보기>

“화북 조선 동포여, 조국 독립 운동에 적극 참여하자.”
 “일제 파시스트 통치를 전복하고 조선 민주 공화국 건설을 위해 분투하자.”
 “동방 피압박 민족의 반파시스트 연합 전선에 참가하자.”
 “조선의 왕조 및 독립 동맹 기치 하에 단결하라.”

- ① 조선의용대는 1940년 김구, 지청천을 중심으로 충청에서 창설되었다.
 ②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단체들은 1935년 민족혁명당(후에 조선민족혁명당으로 개칭)을 결성했다.
 ③ 1940년 이후 조선의용대의 일부는 화북으로 이동해 화북 조선독립동맹을 결성했고, 1942년 이 동맹이 지도하는 조선의용군으로 개편되었다.
 ④ 조선의용군은 화북에 항일 근거지를 둔 중국 공산당 지도하의 팔로군과 연합해 항일 투쟁을 전개했다.

15. <보기>에서 조선 전기 여진과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보기>

ㄱ. 무역소를 두고 국경무역을 허락했다.
 ㄴ. 북평관을 두고 여진 사신을 접대했다.
 ㄷ. 국경무역을 위한 무역소는 의주에 설치했다.
 ㄹ. 경기도, 황해도 일부 주민을 북방으로 이주시켰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ㄷ, ㄹ

16. <보기>의 내용을 저술한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우리 조선의 역사적 발전의 전 과정은 가령 지리적 조건, 인종학적 골상, 문화 형태의 외형적 특징 등 다소의 차이는 인정되더라도, 다른 문화 민족의 역사적 발전 법칙과 구별되어야 하는 독자적인 것이 아니다. 세계사적인 일원론적 역사 법칙에 의해 다른 민족과 거의 같은 궤도로 발전과정을 거쳐 왔다.

- ① 조선사 편수회에 참여했다.
 ② 식민 사관의 정체성론을 비판했다.
 ③ 민족정신으로서 ‘국혼’을 강조했다.
 ④ 고대사 연구를 중심으로 민족주의 사학을 정립했다.

17. <보기>에서 (가) 시기에 일어난 역사적 사건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보기>

	정유재란	(가)	인조반정	
1500년				1700년

- ① 정묘호란이 발생했다.
 ② 광해군이 중립외교를 펼쳤다.
 ③ 허준이 동의보감을 완성했다.
 ④ 일본과 기유약조를 체결했다.

18. <보기>에서 조선 전기 5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보기>

ㄱ. 지휘 책임은 무반관료가 맡았다.
 ㄴ. 지방군은 5위에 포함되지 않았다.
 ㄷ. 무관인 갑사와 의무군인인 정군이 주축이었다.
 ㄹ. 5위의 정군은 16세 이상 60세 이하 현역군이었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ㄷ, ㄹ

19. <보기>의 괄호 안 이 신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 제일 환영받기는 외국인이 경영하는 (이 신문)이었다. 당시 정부의 잘못과 시국변동을 여지없이 폭로하였다. 관 쓴 노인도 사랑방에 앉아서 신문을 보면서 혀를 툭툭 차고, 각 학교 학생들은 주먹을 치며 통론(痛論)하였다.
 - 유광렬, 『별건곤』

• 지금 한국에서 한 외국인이 발행하고 있는 (이 신문)은 일본의 여러 잘못된 정치를 비판하며 끊임없이 한국인을 선동하고 있다. 이에 대해 통감으로서도 어찌할 수가 없다.
 - 이토 히로부미가 일본에서 행한 연설

- ① 문맹 퇴치를 위한 문자 보급 운동을 주도했다.
 ② 국채 보상 운동에 적극 참여했다.
 ③ 서재필 등이 정부의 지원을 받아 창간했다.
 ④ 순한문으로 발행된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신문이다.

20. <보기>의 내용을 도출한 회의 이후의 해방 정국을 설명한 것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보기>

• 민주주의 원칙하에 독립 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조선 임시 민주주의 정부 수립
 • 조선 임시 정부 구성을 원조하기 위한 미소공동위원회 설치
 • 최고 5년간 미·영·중·소 4개국의 신탁 통치 실시

- ① 좌익 세력은 처음에 신탁 통치에 반대하는 입장이었다가 결국 지지했지만, 우익 세력은 신탁 통치에 반대하는 등 신탁 통치 문제로 좌우 이념 대립이 치열해졌다.
 ② 미국과 소련은 자국에 우호적인 정부를 한반도에 세우려고 했는데, 참여 단체 자격 문제로 제1차 미소공동위원회가 결렬되었다.
 ③ 여운형과 김규식의 중도파는 미군정의 후원 아래 좌우합작위원회를 결성하고 임시 정부를 수립하려고 했으나 우익과 조선 공산당의 불참으로 실패했다.
 ④ 남한만의 단독 정부 수립이 논의되자, 박헌영은 남북 민족 대표자들이 모여 통일 정부 수립 방안을 논의하자는 남북 협상을 제안했다.

이 면은 여백입니다.